

# 現代帝國主義經濟理論에 대한 小考

—「J. 스트레이치」理論을 중심으로—

呂 井 東

<目 次>

- I. 序 說
- II. 「J. 스트레이치」의 帝國主義觀
  - 1. 序 言
  - 2. 帝國主義理論展開를 위한 提言
  - 3. 「레닌」과 「홉슨」帝國主義理論의 誤謬
  - 4. 英帝國主義에 대한 實證的 檢討
  - 5. 帝國主義의 終焉
- III. 結 語

## I. 序 說

帝國主義一般理論의 수립에 사용된 分析모델은 哲學的 概念, 經濟的 概念, 社會的 概念, 政治的 概念등이 있다. 이에 따라 帝國主義哲學理論, 帝國主義經濟理論, 帝國主義社會理論, 帝國主義政治理論등으로 분류되는 소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諸理論의 분류는 하나의 概念만을 이론수립의 唯一한 分析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기 보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가지 概念중 그 하나를 상대적인 優位의 分析모델로서 設定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왜냐하면 「V.I. 레닌」마저도 제국주의의 動因을 근본적으로 經濟的 要因으로부터 추구하면서도 政治的, 心理的 要因을 철저히 副次的으로 취급하지만 전적으로 否定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既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국주의경제이론이 學說의 體系로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음은 사실이다. 과연 經驗的 歷史事實을 檢證해 볼때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해석이 제국주의 一般理論樹立의 보편타당한 分析모델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제국주의 연구의 하나의 中心課題로 되고 있는 것이다.

古典的 제국주의경제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J.A. 홉슨」, 「R. 힐퍼딩」, 「R. 록셈버그」,

「O. 바우엘」, 「K. 카우츠키」, 「V.I. 레닌」 등의 이론을 涉獵해보면 「J.A. 홉슨」과 「V.I. 레닌」의 이론이 전형적인 것으로 浮刻됨을 알 수 있다<sup>(1)</sup>.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J.A. 홉슨」이나 「V.I. 레닌」의 고전적 제국주의경제이론에 反하여 現代資本主義의 變遷過程을 감안한 現代經濟學的 視角에서 일련의 새로운 현대제국주의관이 제기되고 있음은 注視할 만하다. 經濟的接近方法을 시도하면서도 非古典的·非「마르크스」主義的 現代의 새로운 제국주의관은 주로 後進國開發理論家들에 의해서 提唱되고 있다. 그들이 共通적으로 주장하는 後進國開發論의 제국주의이론은 戰後의 자본주의는 構造的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古典的 특히 「V.I. 레닌」의 제국주의경제이론의 命題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또 2次大戰이후 舊植民地와 從屬國은 정치적으로 독립하였고 이들 후진국개발의 推進과 양상은 고전적 제국주의의 본질을 변화시켰다는 견해이다.

그러면 本序說에서는 대표적으로 「R. 너시」, 「H.W. 싱거」, 「G. 뷔르달」의 이론만을 帝國主義理論과 연관되는 범위내에서 고찰해 본다.

「R. 너시」의 理論: 「R. 너시」는 후진국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投資와 資本形成의 추진인데 후진국은 「貧困의 惡循環」<sup>(2)</sup>으로 投資와 資本形成이 不振하여 경제발전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供給側에서는 資本不足→低生産力→低實質所得→低貯蓄能力→資本不足, 그리고 需要側에서는 過少投資誘因→資本不足→低生産力→低實質所得→低購買力→過少投資誘因으로. 이러한 빈곤의 惡循環을 타파하기 위한 方案을 「R. 너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需要面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한 方案: 投資誘因은 市場의 廣大性에 의해서, 市場의 광대성은 생산력에 의해서, 생산력은 資本集約度에 의해서 결정된다. 후진국 國內市場의 狹隘性은 生産分野에서의 자본의 사용을 抑制하기는 하나 그것은 個人의 자본가에 한한다. 즉 “單獨으로 취해진 單一生産方向에서의 個個의 投資誘因”<sup>(3)</sup>이 억제되는 것이다. 이에 착안한다면 諸産業은 서로 서로 시장을 제공할 것이고 일련의 補完的 計劃은 均衡成長과 市場의 전면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原理的으로는 광범한 異種産業에 어느정도 同時的으로 자본을 사용하면”<sup>(4)</sup> 需要面의 악순환은 타파될 것이다.

(1) 古典的 帝國主義經濟理論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拙稿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 『經濟論集』 第Ⅶ卷 第1號(1968. 3)과 「帝國主義經濟理論에 대한 理論的 檢討」 第Ⅶ卷 第3號(1968. 9)을 參照하기 바람.

(2)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pp. 4-5.

(3) *ibid.*, p. 11.

(4) *ibid.*, p. 11.

供給面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한 方案: 人口過剩國과 人口稀少國을 나누어 생각한다. 첫째 人口過剩國은 工業社會에서의 명백한 失業과는 다른 대규모의 慢性的 失業 즉 僞裝失業(disguised unemployment)이 존재한다. 人口過剩國에서는 生産的 노동자는 비생산적 노동자를 扶養하는 터이므로 그들은 本來的 貯蓄을 하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저축은 僞裝된 潛在的 저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잠재적 저축을 動員하면 “僞裝失業의 자본축적에의 이용은 그 體制自體內에서 이루어 진다”(5)고 「R. 녀시」는 말한다. 그런데 잠재적 저축을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漏損(leakage)이다. 이 漏損에 의한 체제내부의 저축 부족을 補完하기 위해서 體制外部로 부터의 補足的 저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外部經濟의 필요성은 단지 위장실업의 동원과정에서 생기는 漏損을 보완하기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 評價한다. 또한 그는 “경제적 선진국과 동일한 資本集約度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요 許容될 수도 없다.…… 후진국에 수입된 자본설비로 후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生産要素의 結合比率에 대해서 특히 設計되어야만 한다”(6)고 말하면서 勞動集約的 技術이 採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人口稀少國에서는 인구과잉국과는 다른 형태의 僞裝失業이 생산적 직업과 비생산적 직업의 同時的 存在라는 형태로서 顯在化한다. 이러한 위장실업은 비생산적 직업으로부터 생산적 직업으로 인구가 이동하면 解消된다. 그러나 인구가 이동은 자본형성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資本計劃에 종사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농업으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즉 農業開發의 先行을 「R. 녀시」는 중요시한다.

資本形成과 國家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전개한다. 國內에서의 소득격차의 원리는 國際間的 소득격차에 그대로 적용되어 最近 국제간의 소득격차는 현격히 나타나 있으나 한편에서 국제간의 문화적 사회적 접촉만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소위 「J.S. 듀센베리」의 「示威效果」가 후진국·저소득국의 消費慾望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한다(7). 이와같이 「示威效果」는 자본형성의 極大化를 억제하기 때문에 「R. 녀시」는 국가가 一役을 담당하는 財政政策에 의한 強制貯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強制貯蓄에 관한 財政的方法은 오로지 民間投資와 양립한다.……국가가 強要하는 것은 저축 행위요……투자행위는 개인의 手中에 있다”(8)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國家의 役割은 저축

(5) *ibid.*, p. 38.

(6) *ibid.*, p. 45.

(7) *ibid.*, p. 79.

(8) *ibid.*, p. 151.

의 경우에 강조하는 것이지 투자에 대해서 까지도 劃一的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財政手段에 의한 저축기능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일시적인 方便에 불과함을 示唆한다.

이상과 같은 「資本形成과 그 障害除去方法」에 대한 「R. 녀시」의 견해는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舊帝國主義的 榨取관계는 존재치 않고 후진국의 근대화와 工業化는 必至의 것으로 看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W. 싱거」의 理論; 「H.W. 싱거」는 그의 경제발전이론에서 後進國經濟發展의 障害는 첫째, 후진국은 경제발전의 담당자로서의 革新的 企業家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sup>(9)</sup> 둘째, 후진국은 新技術이 아니라 既存技術의 도입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不利하다는 것,<sup>(10)</sup> 셋째, 후진국의 경제발전의 動因은 供給의 領域이 아니라 需要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소비수준의 배후에 있는 技術과 知識등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다는 것 등을<sup>(11)</sup> 지적한다. 이러한 障害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雇用構造에 대한 二者擇一的인 變化方案을 提示하고 國內의 저축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外資導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外資導入의 담당자는 국가이어야 하나 그 국가의 역할은 永續的인 것이 아님을 示唆한다. 「H.W. 싱거」는 말하기를 “국가가 革新的 기업가로 代行되는 것은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必然의 문제일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현후진제국에서는 종종 그러하다.……그리하여 私的 部門의 進出과 私的 企業家의 양성은 여러가지 정부개발계획의 목표로 간주된다. 경제개발의 증점은 점차적으로 公共部門에서 私的部門으로, 公共의 「이니시에이티브」에서 私的 「이니시에이티브」로, 公共金融으로부터 私的金融으로 옮겨 가려는 의도가 宣稱되는 것”<sup>(12)</sup>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W.H. 싱거」의 견해도 「R. 녀시」와 흡사한 것으로 先後進國間의 關係를 舊帝國主義的 支配關係로 파악하지 않고 선진국에 의한, 또는 국제적인 投資關係機關에 의한, 후진국에의 투자를 곧 近代化로서 파악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不均等發展을 現代의 국제경제질서에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을 示唆한다.

「G. 뤼르달」의 理論; 「G. 뤼르달」은 先後進國間의 不均等發展의 해결책과 國民的 統合과 福祉國家에 입각한 國際的 統合을 생각한다. 그는 또 국민국가정책과 국민적 경제체

(9) H.W. Singer, "Obstacles to Economic Development," *Social Research*, Spring, 1953, pp. 20-23.

(10) *ibid.*, pp. 24-27.

(11) *ibid.*, pp. 27-31.

(12) *ibid.*, p. 23.

획의 수립으로서 舊來의 식민정책적 착취관계는 止揚되고 후진국은 貧困과 沈滯로부터 脫皮할 수 있다는 低開發國의 開發論을 전개한다.

國際的 統合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관계에서 廣範히 국가간의 連帶性的의 증대가 요구됨을 「마르크스」는 잘못 진단하였다. 현재 우리들은 모든 선진국에서 實現되어가고 있는 福祉國家의 개념이 확대되어 福祉世界 (Welfare World)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야만 할 것”(13)이라고 「G. 뤼르달」은 말한다. 그리고 西歐世界의 국제적 경제통합문제에 대한 本來의 이상은 自由와 平等을 기반으로 하는 連帶感情이므로 先後進國間의 간격문제를 해결함에도 自由와 平等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기본적 의미로서의 偉大한 覺醒은 自由와 平等이라는 西歐的 理想世界로의 급속하고 폭발적 澎湃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注視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것을 정지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에 拍車를 가할 수 밖에 없다”(14)고 말한다.

그런데 후진국의 自立性을 위한 후진국개발의 중심문제는 開發衝動임을 「G. 뤼르달」은 지적한다. 그는 말하기를 “이러한 開發衝動은 또한 자본축적의 단계를 뛰어 넘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것은 선진국이 후진국에 福祉國家라는 革命的 理念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주는 것은 어떠한 技術的 助力이지 必須的 資本이 아니다.……그러므로 후진국에서 남은 唯一의 資力은 自助(Self-help)요 또 국가이익에 유리한 國家政策”(15)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후진국 개발계획의 중요성을 認知하고 그 計劃은 國家計劃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국가개발계획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生産性向上을 목적으로하는 總投資額을 증가시키려는 決意를 宣明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方案을 정하는데 있다. 계획은 그러한 包括的인 額數를 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부가컨테 여러가지 分野에 分配되어야만 할 자본의 비율을 결정해야만 한다”(16)고 「G. 뤼르달」은 말한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어디까지나 舊植民地體制的인 것이 아니라 政治的으로는 민주주의의 철저성을 기반으로 해서 행해져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또 그 計劃은 實質的 기준에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국가계획은 個別企業의 生産費나 利潤을 基礎로 하여 合理的으로 마련된다고 할수는 없다. 계획되어야 할 投資의 대부분은

(13) G. Myrdal, *International Economy, Problems and Prospects*, 1956, p. 324.

(14) *ibid.*, p. 312.

(15) *ibid.*, p. 313.

(16)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1957, pp. 80-81.

市場의 입장에서는 收益的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장이 아니라 먼 장래의 5년 또는 10년 이후에 계획된 諸産業을 위한 外部經濟를 創出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巨大한 투자를 하는데 불과한 것이다”(17)고 말한다. 이와같이 經濟開發計劃은 일정한 계획목표의 실현이 중요한 것이지 利潤動機는 어느정도 統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운동기는 副次的인 것이고 국가의 計劃目標가 第一次的이라는 것이다. 要約하건데 「G. 뷔르달」은 指導權下에서 開發할 수 있는 低開發國에서의 自動的 工業化의 추진을 強調하는 것이다.

“Asian Drama”에서의 「G. 뷔르달」의 思考基調는 “후진국은 과거 歐美列強의 植民主義政策이 원인이 되어 下降의 累積過程이 작용하여 貧困과 沈滯가 나타 났으나 앞으로는 近代化理念의 실천이 上昇의 累積過程을 촉발시켜 빈곤과 침체에서 탈피할 수 있다”(18)는 것이다.

近代化理念의 普遍的인 價値로서는 다음과 같은 열한가지를 羅列한다(19). ① 合理性 ② 開發意欲 및 開發計劃 ③ 生産性上昇 ④ 生活水準上昇 ⑤ 社會的 및 經濟的 平等의 실현 ⑥ 制度改革 및 態度變化 ⑦ 國民의 統合 ⑧ 民族의 獨立 ⑨ 狹意의 政治的 民主主義 ⑩ 大衆化된 民主主義 ⑪ 社會的 規律 및 民主的 計劃樹立등이 그것이다. 「G. 뷔르달」의 論調는 經濟的 현실분석에서는 그다지 樂觀的인 것은 아니나 政治的 面에서는 舊帝國主義的 植民政策은 후진국에서 解體過程에 들어 갔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20).

이상에서 概略的으로 고찰한 「R. 너시」, 「H.W. 싱거」, 「G. 뷔르달」 등의 後進國開發論的 接近方法의 공통적 기반을 抽出해 보면 進후의 자본주의는 構造的으로 變化하였고, 후진국은 政治적으로 獨立하였고, 후진국의 경제개발은 近代化理念의 실천으로 수행될 수

(17) *ibid.*, pp. 86-87.

(18) 林鍾哲, 「近代化理念과 經濟發展」『經濟論集』第Ⅶ卷 第2號(1968. 6) p. 106.

(19) *ibid.*, p. 108.

(20) 帝國主義的 植民政策이 解體過程에 들어간 이유로서는

- ① 植民地域의 에리트層이 식민지해방을 위한 鬪爭의 武器로서 裝備하였다는 점.
- ② 自由와 平等에 대한 急進主義者들의 공격이 제국주의열강의 内部에서 점차 強力해 졌다는 점.
- ③ 第一次大戰中 불가피해진 植民地被支配人의 動員은 지배자와 被支配者로서가 아니라 피홀려 싸우는 同僚戰友로서 뒤섞이게 하는 사이에 자연히 白人優位의 神話를 붕괴시켰다는 점.
- ④ 식민지경영의 이익은 식민지에 定着한 白人과의 交易에서만 생겼는데 그것은 그이상 식민지 형태의 隸屬을 不必要한것으로 만들었다는 점.
- ⑤ 2次大戰以後에는 식민지의 維持 經營을 위한 軍事費 및 警察費用이 激增하여 採算性이 없어졌다는 점.
- ⑥ 식민지에서의 民族自決運動이 미국 및 소련의 反植民主義政策에 힘입어 활발함으로써 早期의 獨立賦與의 代價로 既往의 投資利益이나 옹호하는 편이 유리했다는 점 등을 들고있다. 上揭「究研노트」 p. 110.

있고, 선진국은 후진국의 독립과 경제개발에 協力하게 되었고, 資本輸出形態는 현저히 달라져서 그것은 후진국住民을 擄取하는것이 아니라 경제개발이라는 意識的 目標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戰後 先後進國間의 關係는 근본적으로 古典的·「마르크스」主義的 帝國主義理論의 歷史法則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다는 기본적 發想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진국개발론을 準用하면서도 더 幅넓은 視角에서 다룬 「J. 스트레이치」의 帝國主義理論은 후진국개발론적 제국주의이론보다 우리들에게 일층 「鮮명한 感覺」을 던져 준다. 후진국경제개발이론가들은 전후의 帝國主義變質過程에 대한 순수한 理論的 性格을 부여한데 지나지 않으나 「J. 스트레이치」는 多角的인 方法으로 政治·經濟·社會的인 經驗的 歷史事實에 대한 實證的 檢討로서 非古典的·非「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이론의 全思想的 理論的 側面을 把握하려했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注目을 끌게 한다.

數衍전제 후진국개발이론이 媒介된 「J. 스트레이치」 제국주의이론의 特色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후진국간의 相互信賴, 도덕적 지적요인등의 정신적태도를 증시하는 「J. 스트레이치」의 기본이론인 民主主義論과 福祉國家論이 經濟的 側面에서의 「R. 닉시」, 「G. 뤼르달」, 「J.K. 갈브레이드」등이 이론바 開發化, 近代化, 工業化등의 理論과 融合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本稿는 「J. 스트레이치」가 實證的으로 檢討한 帝國主義의 內容分析에 입각해서 수립된 그의 思想的, 理論的 構造에 관한 基本部分을 重點的으로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 II. 「J. 스트레이치」의 帝國主義觀

### 1. 序 言

Evelyn John St. Loe Strachey(1901—1963)는 1931년에 英國勞動黨內閣의 미온적 정책에 불만을 품고 노동당을 탈당하여 철저한 「마르크스」主義者로 되었다가 새로이 1938년 경부터는 「마르크스」주의 懷疑論者로 기울기 시작해서 그후 줄곧 그의 일생동안 「마르크스」主義理論에 대한 철저한 批判的 태도로 일관한 民主社會主義者였다. 때문에 어떠한 對象이든 그에 대한 참된 비판은 그 대상에 몸소 물들었다가 脫出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妥當한 素地가 있다는 관점에 입각할때 「J. 스트레이치」의 「마르크스」主義理論에 대한 批判的 見解는 어느 이론보다 가치있는 일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J. 스트레이치」의 제국주의관은 그의 여러 著書중에서도 『現代의 資本主義』(Contem-

porary Capitalism 1956), 『帝國의 終焉』(The End of Empire 1959), 『偉大한 覺醒』(The Great Awakening; from Imperialism to Freedom. 1965) 등에 典型的으로 나타나 있다. 그 중 특히 『帝國의 終焉』에 代表적으로 浮刻되어 있다. 그는 『帝國의 終焉』의 序文에서 “帝國主義란 어떤 民族 또는 어떤 國民이 他民族 또는 他國民을 征服하고 制壓하여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過程이다. 帝國이란 이와같은 方法으로 성취된 하나의 狀態”(21)라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帝國主義에 대한 一般的 定義는 「J.A. 홉슨」이나 「V.I. 레닌」의 古典의 제국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否定的 立場을 명백히 했을 뿐만 아니라 「H.J. 모건소」의 權力政治的 해석이나(22) 「J.A. 슈페터」의 社會心理的 해석과(23) 一脈相通한 一面이 있음을 感知케 한다.

「J. 스트레이치」의 기본적 現代帝國主義觀은 첫째, 2차대전후 植民地와 從屬國의 독립으로 제국주의는 消滅되었고 둘째, 先進資本主義諸國은 人民의 對抗의 壓力(Counter Pressure)에 의해서 社會福祉國家로 등장하여 反帝國主義的 國家로 되었고 셋째, 전후 새로운 제국주의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既存의 제국주의의 動因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경제적 要因만이 아니라 戰略的 動機가 作用하는 競爭精神(Spirit of Emulation)이 기본적 요인이 될 수 있었음을 重視하고 있다. 그러므로 「J. 스트레이치」의 제국주의觀은 部分的인 面에서는 「J.A. 홉슨」이나 「V.I. 레닌」의 제국주의이론을 인정하는 바도 있으나 중요한 要因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로 되는 셈이다. 이하 「J. 스트레이치」의 제국주의이론구조를 考察해 본다.

## 2. 帝國主義理論展開를 위한 提言

人類學的 記錄에 의하면 原始社會(文明化되기 以前社會)에서는 征服과 從屬으로서 隸屬化시킨 제국은 등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文明化되기 이전사회에서는 인간은 一定한 技術水準이하이므로 인간노동은 自己維持가 고작이고 剩餘를 생산치 못하므로 단약 奴隸化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採算이 맞지 않기 때문이러는데 「J. 스트레이치」는 착안하여 타인의 노동에 寄食하고 그것을 從屬化시켜 隸從시키고 擄取하는 가능성(帝國의 可能性)은 人類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비이상의 것을 생산할 수 있는 文明社會의 출현으로부터 始發된다고 말한다. 文明사회로부터 제국이 시발되는 이유는 첫째로, 文明은 어떤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동에 寄食함이 없이는 즉 착취없이 는 발전할 수 없게 되었고, 둘째로 노동하지

(21) John Strachey, *The End of Empire*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59) p. 7.

(22) 拙稿 上掲論文(第Ⅶ卷 第1號) pp. 161—170 參照.

(23) 拙稿 上掲論文(第Ⅶ卷 第3號) pp. 87—100 參照.



않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氣分이 좋은 일이므로 타인의 노동에 寄食하기 위해서 직접 노예화를 피한데 있다고 한다<sup>(24)</sup>. 그러므로 文明社會 즉 Sumer, Assyria, Egypt, Indus 諸國, 黃河流域諸國, 中南美諸社會등이 出現하자마자 어디에서든 他人을 隸屬化하고 노예화하고 그리하여 人間勞動에 대한 지배를 증대시키려는 帝國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J. 스트레이치」는 “어떻던 처음에는 擄取, 奴隸化, 從屬化와 帝國이라는 관념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초의 제국의 確立은 剩餘를 생산하는 노예 또는 노동의 적절한 供給을 확보하려는 試圖의 결과로부터 생긴것이다”<sup>(25)</sup>라고 말하고 이러한 人類社會의 진보에 관한 叙上の 설명을 최초로 定式化한 것은 「마르크스」와 「엔겔스」임을 是認하면서 “重要한 것은 帝國 및 帝國主義가——終局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던——本來는 잉여를 생산하는 노동을 적당히 확보하려는 企圖였다고 把握하는 것”<sup>(26)</sup>이 옳다고 말한다.

이상과 같은 개념으로부터 그는 最初의 帝國은 자동적으로 특수한 종류의 것임을 提起하고 역사상에 나타난 제국의 구별은 確然하고 엄격한 것은 아니나 세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있다고 말한다<sup>(27)</sup>. 즉 ① 노예노동에 기초를 둔 始源的 奴隸帝國, ② 略奪的 商業에 기초를둔 商業帝國, ③ 充分히 발전한 資本主義的 帝國이 그것이다.

아무리 노예노동에 기초를 둔 최초의 노예제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略奪的 性格이 없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帝國의 初期世代라고도 말할 수 있는 Sumer, Babylon, Assyria, Egypt, the Hitti 帝國, the Indus 諸國등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擴張과 衝突이라는 二重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으로 이러한 확장과 충돌의 과정은 옛날부터 最近까지 여러가지 종류의 帝國의 歷史의 本質이다”<sup>(28)</sup>라고 「J. 스트레이치」는 힘주어 말한다.

略奪的 商業에 기초를 둔 商業的 帝國主義의 경우는 여러가지 類型(例컨대 Venice, Portugal, Spain, 佛, 英)등이 있으나 그 기본적인 특성은 隣接民族의 從屬化, 奴隸化로서 직접 착취하려는 決意보다도 오히려 인접민족과 유리한 交易條件으로서 致富하려는 것이었고 또 金에 대한 열광적인 갈망이 정복의 原動力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重商主義의 제국주의시대에도 실제로 征服行爲가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를 「J. 스트레이치」는 英國重商主義帝國의 範例에서 “通商者가 상대방의 原始的이고 混亂하고 衰退한 社會를 자기들이 정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通商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만약 정복없이도 그 利潤을

(24) John Strachey, *op. cit.*, pp. 320—321.

(25) *ibid.*, p. 322.

(26) *ibid.*, p. 325.

(27) *ibid.*, p. 325.

(28) *ibid.*, p. 328.

획득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항상 정복을 원하지 않았다”(29)고 말하여 상대방의 通商條件에 따라 征服이 감행될 수도 있고 감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充分히 발전한 資本主義的 帝國主義社會는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철저한 措置가 없는 限 所得의 不均等과 餘他の 諸狀態를 발생케하여 그 支配階級이 정복하고 식민지화하고 그들이 가능할 수 있는 세계의 대부분을 착취하려는 방법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만약 이를 수정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정복을 企圖치 않는 諸國과 매우 성공적으로 무역을 하여 共生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證據는 과거 14年 동안(1945—1958) 帝國의 대부분을 靖산한 英國住民의 生活水準이 上昇된 것으로 立證될 것이다.……만약 先進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內部的 變化를 철저히 수행하려 한다면 또 그러한 意向이 있다고 한다면 제국을 終息시킴도 가능할 것이다”(30)라고 말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J. 스트레이치」의 제국주의이론 展開를 위한 提言을 包括적으로 要約해 보면 ① 帝國은 文明社會이후에 등장하였고, ② 최초의 제국은 奴隸帝國으로부터 始發하였고, ③ 노예제국의 動因은 剩餘를 생산하는 노예 또는 노동의 적절한 供給을 확보하려는 原因이 있었고, ④ 商業的 帝國主義는 유리한 交易條件으로부터 致富하려는 것과 金에 대한 渴望에서 비롯되었고, ⑤ 商業的 帝國주의시대의 征服現象은 相對方的 通商條件 여하에 달렸으며, ⑥ 資本主義的 帝國주의시대에는 先進資本主義國家는 앞으로 反帝國主義的 禍祉國家社會로 등장되어 帝國은 終焉을 告할 것이며, ⑦ 時의 古今과 種의 여하를 막론하고 제국의 역사의 本質은 擴張과 衝突이라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提言에 입각하여 「J. 스트레이치」는 자기의 帝國主義理論構造를 수립하고 있다.

### 3. 「레닌」과 「홉슨」 帝國主義理論의 誤謬

#### 1) 「J.A. 홉슨」과 「V.I. 레닌」 帝國主義理論의 中心的 特徵

1870년 전후부터 高度로 발달한 先進諸國은 상호간에 凌絶한 경쟁을 전개하면서 한결 같이 세계의 殘餘部分에 대한 併呑에 나선 이유에 대하여 合理的인 설명을 한 嚆矢는 “帝國主義란 자본주의 체제內에서의 剩餘資本의 不調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二者擇一의 國內政策”이라고 믿는 「J.A. 홉슨」의 자유주의적 帝國主義經濟理論임을 「J. 스트레이치」는 시인한다. 그리고 「J. 스트레이치」는 다음과 같은 「J.A. 홉슨」의 句節을 想起시킨다. “제국주의의 당연한 伴侶者인 軍國主義, 官僚主義, 保護主義, 資本의 集中, 과격한 商況變動

(29) *ibid.*, p. 340.

(30) *ibid.*, pp. 340—341.

등에 관련된 제국주의의 분석은 제국주의가 近代民族國家의 최대의 위협임이 명백하게 되었다.……그러나 새로이 創出된 金融的 勢力은 새로운 排出口를 요구하고 그리고 同様の 政治的 同盟과 同様の 社會的 宗教的 博愛的 協力을 이용할 것이다. 각각의 새로운 제국주의의 偉業에 대한 狀況은 그 이전의 모든 偉業과는 相異한바 있다. 어쨌든 앞으로는 大衆의 知性을 타락시키고 국민의 감정을 선동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巧妙한 方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31) “Theodore Roosevelt 大統領, Rockefeller, Pierpont Morgan 그리고 그들의 同僚들 마저 제국주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고 제국주의를 西洋의 위대한 共和國의 책임과 결부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서 過剩으로될 그들의 자본에 대하여 유리한 使用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 나라의 大衆的인 資力을 利用할것을 원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帝國主義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32) 이와같은 「J.A. 홉슨」의 견해에 따라 「J. 스트레이치」도 帝國主義의 大勢는 遺憾스럽게도 1870년 전후에 개시된 資本主義 發展의 새로운 단계의 현실적 필요와 相互一致하였고, 1902년경의 英國帝國主義는 거의 全能者로 비치었었고, 제국주의로 전향한 모든 나라들의 경제발전단계에 도달한 당연한 結果로서 美國은 제국주의로 전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J. 스트레이치」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大勢의 앞날에 대해서 “「홉슨」의 머리속에 比重을 점한 것은 사실 곧 일어나려한 제국주의자간의 切迫한 피비린내나는 衝突은 아니었다. 그를 煩悶케한 惡夢은 다른것이였다. 그는 제국주의는 아직 幼年期라고 믿었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潛在的 意味로서 모든 식민지중에서도 최대의 것——즉 中國——을 아직 併呑 吸收 榨取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가 믿고 있기 때문”(33)이라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홉슨」의 글귀를 인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中國이 언짢게 등장되고 있다. 列強의 小康狀態와 詛呪狀態를 상상하는 것은(中國에서) 쉽지 않다.……그러나 長期間에 걸쳐서 政治的 干涉의 지속적인 과정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中國이) 상상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34) “中國에 대한 產業的 侵害를 결국 피할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이다. 中國이 數世紀동안의 平和에 대한 冬眠으로 부터 빨리 깨어나 강력한 軍事國家로 전향하지 않는 限 中國은 外國勢力의 壓力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35) 이와같이 「홉슨」이 최대의 위기로서 豫想한 것은 第一次大戰이 아니라 列強間의

(31) J.A. Hobson, *Imperialism: A Study*(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5), pp. 360—361.

(32) *ibid.*, pp. 77—78.

(33) John Strachey, *op. cit.*, p. 101.

(34) J.A. Hobson, *op. cit.*, p. 224.

(35) *ibid.*, pp. 310—311.

中國分割과 超國家的인 共同投資團에 의한 착취였다. 말하자면 「J.A. 홉슨」의 惡夢은 列強間에 一致團結한 超國家的 帝國主義가 地球全體를 領有하고 착취하여 제국주의 국가 자신과 植民地와의 경제발전은 共히 沮害될 것이고 그 제국주의 展開의 標的은 中國이 될 것이라고 한점이다. 이러한 「J.A. 홉슨」의 豫見이 그의 理論構造中에서 가장 중요한 中心的 特徵을 이루는 것이라고 「J. 스트레이치」는 이해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어느정도 「홉슨」의 理論을 肯定하면서도 이점에 대해서만은 辛辣한 비판을 不辭하고 있다.

「V.I. 레닌」帝國主義理論의 中心的 特徵은 大衆窮乏化說(The Theory of the Ever-increasing Misery of the Mass of their Populations)과 不均等發展의 法則(The Law of Uneven Development)이라고 「J. 스트레이치」는 지적한다<sup>(36)</sup>.

「V.I. 레닌」의 大衆窮乏化說은 必然的인 자본주의의 발전 결과라는 「마르크스」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대중궁핍화설에 관하여 「V.I. 레닌」은 그의 著書「帝國主義論」에서 별로 言及한 바가 없으나 그것은 論議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당연한 것으로 認定되어 있었던 것이다. 國家干涉으로 大衆窮乏化傾向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케인즈」의 提案같은 것을 「레닌」은 嘲笑했음이 분명하다. 「레닌」도 국가간섭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그가 생각하는 국가간섭은 「케인즈」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J. 스트레이치」는 말한다. “國家는 물론 간섭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국가가 獨占資本에 의해 완전히 所有되고 統制된 국가이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의 要求를 緩和하기 위하여 간섭할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목표인 最大利潤을 關切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서 간섭할 宿命에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이러한 간섭은 반드시 適當한 利潤을 낳고 또 安全한 外國投資의 기회를 創出하는것 이외의 의미는 없다. 즉 이간섭은 한마디로 말해서 帝國主義다”<sup>(37)</sup>라고 「레닌」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不均等發展의 法則이란 “高度로 발달한 자본주의는 賃金勞動者와 農民에 의한 政治的 對抗行動(Counter-Action)이 없는 경우에는 단성적인 不均衡을 발전시켜 어떻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復元調整力(Automatic, self-righting, self-adjusting Capacities)을 상실한다는 테마”를 「레닌」式으로 말한 것이다. 「레닌」은 不均等發展의 法則은 國內經濟構造뿐만 아니라 國際經濟構造에서도 顯在化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大衆窮乏化說과 不均等發展의 法則에 입각하여 「레닌」은 임금노동자들의 帝國內에서의 反抗과 식민지민족의 海外로 부서의 착취에 대한 反抗의 결과는 전쟁의 勃發이라는 標識

(36) John Strachey, *op. cit.*, pp. 104—108.

(37) *ibid.*, p. 104—105.

를 만들고 週期的인 전쟁은 반드시 資本主義的 帝國主義時代를 특징지운다는 結論을 導出하고 있다.

(2) 「V.I. 레닌」과 「J.A. 홉슨」帝國主義理論의 誤謬

「J. 스트레이치」는 「레닌」과 「홉슨」의 理論的 根幹에 대하여 어느 점에서는 肯定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에서는 전적으로 否定的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들 理論의 誤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 先進資本主義內部에서의 窮乏化에 관한 豫言은 잘못이었다<sup>(38)</sup>. 先進資本主義國의 거대한 寡占體는 필연적으로 임금노동자와 농민에게 壓倒的인 영향을 끼쳐 그들의 점차적인 富에로의 가능성을 「레닌」은 전적으로 무시했으나 英美의 민주주의적 環境은 「레닌」의 豫見과는 달리 對抗的 壓力(Counter Pressure)의 성장을 許容하였고 그壓力은 임금취득자 및 농민의 생활수준을 착실히 上昇시켰다. 그러므로 「레닌」은 그의 先驅者인 「마르크스」와 더불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經濟的 歸結을 알지못했던 것이다. 英國人과 美國人의 生活水準을 착실히 上昇시킨 動因은 다름아닌 민주주의의 侵透的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政治的 議會主義的 民主主義를 자본가계급의 支配의 現代의 形態로서 생각했을 뿐이다. 만약 「레닌」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면 慧眼인 그로서 그의 窮乏化說을 도저히 동의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J. 스트레이치」는 迂回的 表現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 「레닌」의 이른바 投資帝國主義理論은 普遍法則으로서는 妥當성이 없다<sup>(39)</sup>.

市場의 諸勢力이 만약 콘트롤되지 않는다면 각 국가 內部에서나 국가간에서나 富益富, 貧益貧의 불균등발전의 확실성은 「레닌」뿐만 아니라 現代國際經濟學者요 非「마르크스」주의적 계국주의 理論家인 「G. 뮌탈」마저도 확신한다. 우리는 持續的인 社會的 간섭에 의해서 克服되지 않는 경우 市場의 諸勢力의 不均等發展의 경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레닌」의 誤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矛盾을 捏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계국주의에 대신할 수 있는 方案과 時代 時代에 따라 外國投資의 상이성을 무시한데 있는 것이다. 즉 住民의 10分의 9에 달하는 非資本家의 소비를 적절히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서 계국주의로부터 脫皮하고 계국주의에 대신할 수 있는 方法이 있음을 「레닌」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歷史的 實證은 「레닌」이 지적한 일련의 因果關係의 全體構造를 움직이는 최고의 原動力

(38) *ibid.*, p. 109.

(39) *ibid.*, pp. 117—118.

으로서의 기본적 경제상의 경향 즉 不均等發展傾向이 逆轉될 수 있음을 判明해 주었다. 그러므로 「레닌」의 投資帝國主義理論은 어느 경향에 대한 診斷으로서는 타당성이 없지도 않으나 普遍法則으로서의 타당성이 없다. 사실 外國投資가 임금취득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을 下落시키고 國民所得의 再分配를 수반함이 없이 경제가 진전되어 나간것은 어느 일정 기간동안에만 타당성이 있었던 것이지 全歷史를 통해서 普遍的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에 「J. 스트레이치」는 “레닌이 先進資本主義에서 필요로 했다는 外國投資가 항상 또는 자동적으로 제국주의를 낳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투자가 債務國의 混亂한 상태 또는 非妥協的인 태도와 같은 障害와 충돌했을때만이 제국주의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 한층 정확할 것이다”(40) 라는 그의 獨特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세계 : 帝國主義의 超過利潤은 投資家階級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일부도 分配받기 때문에 共히 墮落한다는 「레닌」의 命題는 잘못이다(41). 이러한 「레닌」의 命題는 그의 著書 「帝國主義論」에서는 一面은 明示的으로 一面은 暗示的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命題는 오늘날 인정할 수 없음이 實證되었다. 「J. 스트레이치」는 Earl Browder 著 *Marx and America*, 1959 를 引用하면서 英國賃金取得者와 영국의 外國投資와의 관계는 英國內投資에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不利했음을 實證하고 있다.

네제 : 帝國主義의 原因論으로서 國威, 光榮(Glory), 軍事力의 비중이 높아감을 무시하였다. 「홉슨」이나 「레닌」도 이러한 要因들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히 副次的인 것으로 취급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단 외국투자와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최초의 契機가 투자가계급의 貪慾과 필요에 의해서 부여된 뒤에는 經濟的 動機以外的 政治的인 이들 요인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되었음은 確然하다. 國威, 光榮, 軍事力등이 제국주의의 기본적 동기가 될 수 있었던 歷史的 範例는 허다하다. 近來의 예만 들더라도 「T. 루즈벨트」 대통령의 初任期동안의 美帝國主義에로의 移行은 다른 列強들이 전부 제국주의로 치달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수행되었고, 당시 佛蘭西帝國主義는 아프리카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특히 영국) 침식됨에 자극받은 競爭心의 결과였으며, 이에 獨逸의 카이저도 늦을세라 “Germany’s Place in the Sun”이 자기에 대한 의무로서 간주하였다.

他方 植民政府는 식민지의 領有가 그들의 軍事力을 증대하는 것으로 믿었다. 식민지 지배는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부담이 되었기도 하나 여하간 당시의 流行으로는 식민지는

(40) *ibid.*, p. 119.

(41) *ibid.*, p. 120.

군사적 資産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당시 帝國의 領有와 獲得은 국가적 번영과 함께 국가적 偉大性의 수단이며 목적이라고 믿기도 하였다. 이러하므로 “제국주의를 경제적 側面에서 分析하는 것은 時代錯誤의이다. 즉 인간은 富보다 權力을 추구하며 근대적 제국주의의 全過程은 大國間의 競爭의 權力鬭爭으로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sup>(42)</sup>고 「J. 스트레이치」는 力說한다.

다섯째 : 20세기 초기의 資本主義의 제국주의는 그 生涯의 시발이며 제국주의의 頂點은 中國에 대한 共同植民地化나 中國의 共同分割이라고 예상한 「홉슨」의 견해는 잘못이었다.<sup>(43)</sup> 歷史的 實際는 「홉슨」이 예상한 中國의 共同支配 代身에 帝國間에 제 1차대전이 勃發하여 權力의 再分配現象이 대두되었다. 이즈음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特徵의인 새로운 要素로서 「J. 스트레이치」는 첫째, 帝國主義에 대한 식민지의 對抗勢力이 世界의 舞臺에 등장하였고 둘째, 종래의 자본주의제국 內部에서 反帝國主義的, 민주주의적 압력이 성장하여 國民所得分佈를 수정하고 그결과 非帝國主義的 政策을 가능케 하였으며 셋째, 거대한 非資本主義社會(특히 소련)가 세계의 무대에 등장하였다는 事實을 손꼽고 있다<sup>(44)</sup>.

이러한 要素들의 대두로 말미암아 列強들은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帝國主義的要素가 強化되기는 커녕 弱化되기 시작하여 第一次大戰을 前後해서는 分明히 衰退化의 경향을 띄게 되었으므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이제 막 始發이라는 「홉슨」의 예견은 顛倒된 셈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945년 이후에는 제국주의역사를 통하여 어떠한 研究者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역사 즉 帝國의 解體라는 현상이 전개되었음을 注視하면서 「J. 스트레이치」는 “만약 1945년부터 1959년까지 제국주의시대의 終焉을 告했다는 證明만 된다면 이 14년간은 歷史上 가장 特記할만한 轉換期의 하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文明의 黎明이래 아직까지 部分的으로나마 非帝國主義的 세계는 있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sup>(45)</sup>라고 말하면서 그의 著書『帝國의 終焉』의 8장을 끝맺고 있다.

#### 4. 英國帝國主義에 대한 實證的 檢討

1870년 진후부터 세계는 英國과 佛蘭西를 필두로 하여 獨, 美, 日, 심지어는 白, 和, 葡, 澳, 洪, 露까지도 新帝國主義的 沒濤가 일고 있었다. 이들중 말할것도 없이 英國帝

(42) *ibid.*, p. 122.

(43) *ibid.*, Chapter VIII.

(44) *ibid.*, p. 135.

(45) *ibid.*, pp. 137-138.

國主義는 典型的인 것이었다. 「홉슨」의 통계에 의하면 1870년부터 1900년까지 영국이 획득한 영토는 475萬 4000平方哩, 人口는 8800萬人에 달하고 있다<sup>(46)</sup>. 이러한 統計가 제국주의 현상의 原因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약간의 具體的 事例를 究明하는 것이라고 「J. 스트레이치」는 말하면서 英國의 「에지프트」의 획득은 Cromer의 記錄에 따라 南阿의 정복은 Milner의 기록에 따라 제국주의의 動因을 分析檢討하기 시작한다.

「에지프트」 획득의 主役을 맡았던 Cromer 卿은 그의 著書 *Modern Egypt* 1908에서 “현 단계에서의 「에지프트」 문제의 起源은 財政問題였다”고 말한다. 사실 當時 「에지프트」는 財政問題로서 陳痛을 겪고 있었다. 1863년에 「에지프트」公債는 325萬파운드이던 것이 1876년에는 9400萬파운드로 증가하였다. 증가분중 1600萬파운드는 「스에즈」運河 사업에 사용했으나 그외의 使用途는 분명치 않다. 一部는 浪費되고 一部는 汚職으로 蕩盡되고 일부는 負債에 대한 利子支拂에 充당하였을 것이다. 「에지프트」公債에 대한 債權者는 주로 英國과 佛國의 個人이나 團體였다. 「에지프트」문제는 英國政府가 公債의 利子を 公債所有者를 대신해서 辨償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이 Cromer의 견해다. Cromer의 견해와 같이 「에지프트」의 併合은 英國國家權力이 「에지프트」政府에 일정한 이자율로서 돈을 빌려준 公債所有者를 保護하기 위해서 행사되었음은 사실이다.

南阿의 경우는 「에지프트」의 財政問題와는 약간 사정이 달라서 金鑛採掘權과 廉價한 勞動力의 공급이 문제의 焦點이었다. Boer共和國은 英國資本이 金과 金鋼石의 採掘과 그 採掘과정에서 Kaffir 人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轉覆되고 併合되었던 것이다.

「에지프트」의 경우와 南阿의 경우는 각기 다른 原因에서 출발했으나 兩者의 共通分母를 찾는다면 英國資本의 海外投資가 적절히 助長保護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커다란 부분은 사실상으로는 形式上으로는 併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明白히된 점이다. 그러나 「에지프트」나 南阿는 無能하고 虛弱한 나라였기 때문에 경제적 동기로부터 쉽사리 併合될 수 있었으나 南美의 경우는 英國에 대한 債務國이 있음에도 주변의 간섭 및 기타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英國은 끝내 南美諸國을 併合하지 못했음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아니라 별로 將來性이없는 사하라沙漠을 佛蘭西가 併合한 것은 經濟的 동기라기 보다 軍事的戰略과 더불어 競爭精神(Spirit of Emulation)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sup>(47)</sup>.

(46) J.A. Hobson, *op. cit.*, p. 106.

(47) John Strachey, *op. cit.*, pp. 96-97.



그러므로 「에지프트」와 南阿 문제가 경제적 動因에서 연유되었다해서 新帝國主義에 대한 경제적 解釋을 一律적으로 機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無理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준다.

「J. 스트레이치」는 植民主義를 제국주의의 核心으로 간주하고 舊植民主義는 1945년 이후 급속히 消滅하기 시작하였으나 1959년 현재 舊植民主義的 帝國主義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즉 美國의 「래틴·아메리카」에 대한 間接型帝國主義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제국주의는 舊식민지주의적 제국주의에 비교하면 不完全하고 一時的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sup>(48)</sup>.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間接型帝國主義는 우리의 論議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帝國主義의 範疇 밖의 것임을 示唆한다.

「J. 스트레이치」는 英國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결과하는 英國의 經濟的 損益計算을 交易條件과 石油投資와 其餘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實證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식민지가 가치있는 것이고 식민지 주민의 착취에 의해서 영국인의 生活狀態가 개선되었고 영국이 식민지를 상실하면 經濟的 困境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과거의 영국 여론의 默示的인 前提였었다. 그러나 英國의 交易條件을 檢證해보면 그렇지 않았음이 밝혀진다.

1913년을 交易條件의 기준년도로 하여 100으로 친다면 帝國의 絶頂期라고 생각되는 「빅토리아」 시대인 1880년대는 1913년 보다 매우 不利하였고 1888년의 交易條件은 117로서 1913년 보다 17% 惡化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帝國이 거의 清算된 1953년에는 82로서 1913년보다 18% 有利하게 되어있다. 1945년 이후 최악의 交易條件의 해인 1951년에 있어서도 1913년때의 交易條件보다 良好했고 19世紀의 교역조건보다는 훨씬 有利했다. 그러므로 영국이 제국을 상실하면 交易條件은 급격히 不利해 질 것이라는 이론은 근거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J. 스트레이치」는 力說하고 있다<sup>(49)</sup>.

제국주의의 主要目的이 國內의 過剩資本을 투자할 수 있는 海外投資地域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면 英國의 石油投資의 顛末을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英帝國主義史上 財寶로서 中東의 石油를 능가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Andrew Shonfield 著 *British Economic Policy since the War*, 1958에 보면 1956년 英國의 石油投資는 全海外投資에서 생기는 6億 6700萬파운드의 總利潤중 3億 2300萬파운드의 總利潤을, 1億 7800萬파운드의 純利潤중 9500萬파운드의 純利潤을 얻었다고 推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石油投資로 부터 생기는 英國의 純利潤은 全海外投資로부터 생기는 純利潤의 반이상을 점

(48) *ibid.*, p. 144.

(49) *ibid.*, pp. 151-152.

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石油投資로부터 얻는 純利潤은 1957年 英國總國民所得에 비하면 불과 0.5% 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中東支配를 위한 軍事上 外交上의 비용을 감안한다면—하나의 例만들면 1956년까지 油田의 경우는 年額 7000萬파운드의 補助金を 支拂하였다—영국이 石油帝國을 포기한다 해도 별로 심각한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想定도 할 수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석유투자는 被投資國에게도 不利한바가 없었다는 것이 實證되기도 한다.

(表 1) 國際聯合農業委員會地中海開發計劃 75 面の 表, 1952年 石油協定에 入格한 支拂條件 (Shillings/pence)

	361 API 噸當 基本公示價格	噸當 生產費	噸當 利潤	噸當 이라 取得分
I. P. C.				
改 定 前	93/1	13/—	80/1	40/0 $\frac{1}{2}$
改 定 後	108/4	13/—	95/4	47/8
B. P. C.				
改 定 前	87/7	13/—	76/7	38/3 $\frac{1}{2}$
改 定 後	100/6	13/—	87/6	43/9
M. P. C.				
改 定 前	85/8	13/—	72/8	36/4
改 定 後	99/11	13/—	86/11	43/5 $\frac{1}{2}$

註 { 出處: 이라크 國立銀行  
API는 石油의 品質을 나타낸다.

(表 1)<sup>(50)</sup>이 명시하는 바와같이 投資國과 被投資國간의 利潤配分은 利潤折半制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영국이 투자하지 않고 被投資國이 自營한다면 그들의 非能率的인 社會構造로서는 영국투자로서 얻는 利潤配當보다 低位의 水準을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영국의 中東地域에서의 石油投資는 被投資國에게도 보람된 一面이 있다고 「J. 스트레이치」는 지적한다.

이상과 같이 英國의 石油帝國을 總覽한 「J. 스트레이치」는 “石油帝國은 확실히 영국경제에 다대한 이익이 있었다.……과거 10년간 中東으로부터 석유이윤이 영국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中東地域國家들도 利潤의 많은 부분을 配當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石油帝國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떠한 結果가 생겼을 것인가에 대해서……評價할 수 없다.……그러나 나의 信念으로서 한가지 말할 수 있는것은 여러가

(50) *ibid.*, p. 159.

지 제국주의적 모험중 財政的으로 가장 성공한 석유투자의 冒險도——石油帝國을 상실한다 하더라도——總損失은 總民生産物の 1% 아니면 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中東支配를 위한 軍事上, 外交上의 비용을 고려한다면……중동에서의……普通 상상하고 있는것 보다 훨씬 이익이 적은 것이며 만약 英國의 石油企業의 제국주의적 요소가 포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받는 경제적 損失은 그다지 심각한 것이 못됨을 나타낸다”(51)고 말하고 있다.

石油投資이외에도 영국은 海外投資로서 巨額의 이윤을 얻은 예는 허다하다. 그 一例로서 「北로데시아」(Northern Rhodesia)에서의 英國人의 銅山投資의 경우를 들수있다. (表 2)는 Phyllis Deane 著 *Colonial Social Accounting*, 1953에서 引用한 것이다.

(表 2) 「北로데시아」 鑛山業의 支出

1. 歐洲人의 給料, 賃金, 賞與金	£4,100
2. 아프리카人의 賃金 및 賞與金	1,400
3. 아프리카人에의 現物給與	600
4. 請負人에 대한 支拂	1,000
5. 로데시아 鐵道에 대한 支拂	1,800
6. 所得稅	3,600
7. 關稅	
8. 全支出	£12,500
9. 產出高의 總價値	£36,742

(表 2)가 나타내고 있는바와 같이 實現된 總價値 3670餘萬파운드中 불과 1250萬파운드가 「로데시아」에서 사용되었으므로 總利潤은 총가치의 3분의 2에 달하는 2400餘萬파운드나 되는 셈이다. 總價値 3670餘萬파운드中 貨幣 및 實物로서 아프리카鑛山勞動者에게 지불된것은 겨우 200萬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中東諸國과는 달리 「로데시아」가 너무도 原始的인 국가였기 때문에 생긴 소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아프리카인이 自國에서 생겨나는 富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종류의 超過利潤이 英國國民所得의 중요한 要素라는 결론으로 飛躍함은 잘못”(52)이라고 「J. 스트레이치」는 말한다. Phyllis Deane은 1945년 아프리카 成年男子의 一人當 年平均所得은 27 파운드이나 아프리카鑛夫는 年 41 파운드였다는 統計를 提示하고 이들 광부의 소득은 아프리카인의 自給農家보다 2,3倍나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하므로 土着民族의 세력이 너무나 취약해서 創出된 가치의 極少部分밖에 얻을

(51) *ibid.*, pp. 175—176.

(52) *ibid.*, p. 178.

수 없는 「로데시아」에 대한 超帝國主義的 開發의 경우도 전연 개발되지 않는것 보다 「로데시아」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J. 스트레이치」는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英國의 銅山投資는 石油投資 다음가는 利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전체국민소득과 관련시켜 생각한다면 너무나 少額이기 때문에 英國經濟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것이라는 論理를 전개하기도 한다.

全般的인 英國經濟政策에 관한 檢討에 際하여는 Andrew Shonfield의 前述한 *British Economic Policy since the War*, 1958을 資料로 채택하고 있다. A. Shonfield는 이 著書속에서 1655년 英國會社의 海外投資는 平均純利潤率 10%이하였고 國內投資의 平均利潤率은 8%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윤을 國民的 利益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해외투자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純利潤을 國民的 이익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있다. 그의 계산으로는 國內에서 투하된 자본은 영국의 實物的 產出高의 증가 즉 總國民生産物의 증가를 낳고 그 증가율은 投下資本 1 파운드當年額 33%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結論의으로 말하기를 國內投資가 아니라 海外投資로서 國民的 利益이 增加하는 것은 단순히 영국의 海外企業이 영국에 가지고 올수있는 이윤을 매우 빨리 즉 國內에서 資金을 구하는 영국의 輸出製造工業의 기업보다 3 배 내지 4 배 더빨리 그 利潤을 영국에 들여오는 경우에 限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株主의 수중에 들어가는 實現된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경영자, 또는 다른 관계자의 손에 들어가는 創造된 全價值다. 海外投資의 경우는 利潤이외의 다른 가치는 전혀 국내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A. Schonfield는 海外投資는 국내투자보다 投資家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 이익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국내투자가 영국인 全體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투자보다 유리하다고 確信하고 있는 것이다.

A. Shonfield의 理論에 대한 몇가지의 未備點을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그의 理論에 입각하여 「J. 스트레이치」는 “만약 국민적 이익이 所得을 남게하는 株式이나 證券의 所有者(全人口의 約一割)의 이익과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할것 같으면 해외투자와 관련있는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매우 合理的으로 밀받침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國民的 利益을 영국의 賃金 및 俸給取得者(全人口의 約 9割)의 福利와 동일시 한다면 영국으로서는 국내 투자가 압도적으로 利益이다.……영국의 해외투자는 확실히 돈을 벌었고 費用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間接費用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帝國은 벌써 영국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實質의 利益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53)고 말한다.

지금까지 概觀한 바와 같이 廣範하게 英帝國主義를 實證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J. 스트레이치」는 “영국인이 前殖民地를 착취할 殘餘能力을 清算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보통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제국주의적 착취의 殘餘機會를 拋棄하면 영국은 純損失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正確하지 않다. ……식민지 착취의 實力行使를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損失은 불과 英國全國民所得의 1% 정도이며 이러한 액수도 식민지 지배의 계속을 위한 出費를 加算한다면 손실이 될 수도 없다. ……「레닌」이나 「홉슨」은 영국이 이미 帝國의 10분의 9를 상실하였다는 사실과 영국의 생산물을 세계의 다른 부분의 생산물과 交易하는 比率에 아무런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 ……고도로 발달한 국가와 未開發國間의 富의 간격을 擴大하는 경향이 제국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단 資本主義世界에서만 限定된 것이 아님을 注目하자. 그러므로 제국주의란 用語를 一國의 他國에 대한 어느 정도의 政治的인 그리고 究極의 手段으로서는 物理的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일반적인 先入見과는 正反對로 국민은 오늘날 帝國의 領有的 量과 反比例하여 強해 지기도 하고 弱해 지기도 한다”(54)는 그의 기발한 이론을 展開하고 있다.

##### 5. 帝國主義의 終焉

「J. 스트레이치」는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歷史上 처음으로 巨額의 資金이 富國으로부터 貧國으로 開發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서 실제로 提供되고 있다. Colombo Plan 이나 American Point Four Programme 이 提供하는 자금과 종래 私企業의 利潤目的을 위해서 수행한 제국주의적 投資와를 전연 구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55) 라고 말하면서 戰後 先進國이 후진국에 공여하는 經濟援助는 제국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相互信賴에 입각한 近代化의 新方式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經濟援助가 非帝國主義的 性格의 것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적 偉大性이란 말을 物理的 征服이나 착취라는 말보다 훨씬 素朴한 用語로 생각할 수 있는 包容力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마음과 정신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단지 少數知識人의 流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國家財産의 成敗를 左右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이 偉大할 수

(53) *ibid.* p. 181. John Strachey, *Contemporary Capitalism*, Chapter 8.

(54) John Strachey, *The End of Empire*, pp. 188-194.

(55) *ibid.*, p. 199.

있는것은 세계의 民衆에게 봉사함으로써 되어질 것이다. 우리들은 세계민중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物質의 수단과 技術的 熟練을 제공하려는 줄기찬 노력만이 그들에게 奉仕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가장 바람직한 理想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사회를 改善하고 充實히 하려는 이상과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이다. 모순은 커녕 우리들은 直接的 援助의 경우와 같이 성공적으로 進展시키고 機能을 발휘하고 自己調整을하는 사회의 模範을 示顯함으로써 世界에 貢獻할 수 있는 것이다”(56)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이 獨占的 利潤을 위하여 後進國을 착취하고 從屬化했던 재국주의적 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오늘날 先進國과 後進國 두개의 세계간에는 새로운 關係가 수립되어 非帝國主義的 性格이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J. 스트레이치」는 力說한다. 이러한 새로운 關係의 수립과 非帝國主義的 性格이 유지되려면 先進國과 後進國 雙方이 다같이 상대방에 대한 態度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만 된다는 점에서 “첫째로 低開發國民은 필요하기는 하나 매우 어려운 工業國과의 접촉과정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守護할 수 있는 방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은 강력한 中和作用이 없는 限 임금취득자와 獨立生産者들의 最低生存費 이상의 全國民生産物은 비교적 소수의 財産所有者와 그들 가족의 수중에 귀속됨을 우리는 알고있다.……主要産業社會를 破局에 몰아 넣지 않고 자본주의의 고유한 경향을 豫防한것은 줄기차게 행사된 政治的 民主主義였다. 主要國家에서는 농민·노동자의 一票은 財産所有者의 一票과 同價値의 것을 알게되어 농민·노동자는 국가의 힘을 자기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점차로 성공하였다.……先後進國間의 對抗作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民主主義原則이 국내에서 적용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간에 적용되는 어떠한 民主主義形態인 것이다.……이와 더불어 自由社會가 生存할 기회가 있으려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주민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그것은 선진국주민 자신이 道德的, 知的 확신에 의해서 動機가 부여된 慎重한 행동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57)라고 「J. 스트레이치」는 강조한다. 이와같이 先後進國間의 새로운 關係가 유지되려면 民主主義的 徹底性의 重要性和 先進國家의 道德的 知的 要因 즉 精神的 態度를 증시하고 있다.

이러한 論據로부터 「J. 스트레이치」는 당연히 英聯邦의 協力關係는 相互信賴와 민주주

(56) *ibid.*, p. 247.

(57) *ibid.*, pp. 313-314.

의 尊重性과 영국의 精神的 態度로서 밑받치고 있는 것이며 英聯邦이야말로 非帝國主義의 성격의 典型的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는 “英聯邦加盟國 相互間에 존재하는 現存의 制限되고 불완전한 정도의 협력이라 할지라도 영연방은 결국 국제협력의 하나의 본보기임에는 틀림없다. 聯邦加盟國 상호간의 定期會議, 國家公文書의 交換, 經濟協定 등은 국가주권의 絶對主義를 파괴하는데 매우 유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확실히 英聯邦과 같은 어떠한 제도도 廢止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절대국가 주권은 現代의 Molochs로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58)라고 말하여 英聯邦의 價値性과 영연방은 帝國이 아니고 제국의 解體過程에서 생겨난 產物임을 力說하고 있다.

舊帝國 즉 英帝國이 解體過程에 들어갔고 帝國主義終焉의 吊鐘이 울렸다고 한다면 現世界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指稱되는 美國, 소련, 中國이 새로운 帝國으로 등장될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J. 스트레이치」는 否定的 입장을 堅持하고 있다(59). 그는 美國이 새로운 帝國主義時代를 裝飾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다섯가지를 들고있다. 첫째, 美國에는 反帝國主義의 전통이 있고 둘째, 어느점에서는 의연히 미국의 경제가 帝國主義以前的인 特質을 가지고 있고 셋째, 低開發地域에는 매우 새로운 民族主義의 有効性과 強力性이 있고 넷째, 대체로 帝國主義終了國家들인 中間國家의 대두가 있으며 다섯째, 소련과 中國이라는 反對勢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美帝國主義支配의 時代가 다가올 것이라는 豫見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도 “美帝國主義成長을 방해한 同一한 障害物의 다수가 準用되어 소련제국주의 성장도 방해된다. 소련도 강력한 民族主義의 세계에 直面하고 있다.……소련은 또 자국과 같은 정도의 힘을 가진 敵對中心勢力……美國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最後로 소련은 어느점에서는 적어도 그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에서나 그의 경제구조에서나 제국주의적 役割을 수행하기에는 부적당하다”(60)고 「J. 스트레이치」는 말하고 中國共產主義의 경우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소련, 中國은 舊帝國(英國)에 대신하여 새로운 帝國을 구축할 가능성이 전연없는 것은 아니나 각각의 경우 持續的인 제국주의의 構築이 성공되기에는 重大한 障害物 즉 世界의 힘의 均衡, 강력한 民族主義, 潜在的인 제국주의적 超國家自體內에 있는 전면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經濟的, 心理的 反對衝動, 그리고 國家間的 對抗등등의 障害物이 새로운 제국주의시대의 확립을 위해서는 連鎖的인 障害로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대는 世界帝國의 출현이 아

(58) *ibid.*, pp. 262~263.

(59) *ibid.*, p. 282.

(60) *ibid.*, pp. 304—305.

나라 어느정도라도 독립한 未曾有의 多數國家가 존재하는 사회일 것이라고 「J. 스트레이치」는 예견하고 있다<sup>(61)</sup>.

또 그는 나아가 民主主義精神에 입각한 福祉의 理念에 의해서 戰後帝國主義는 終焉을 告했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배에 따라서는 착취하려는 惡靈과 같은 意志를 영국인은 상실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된 하늘의 配慮를 감사한다. 왜냐하면 영국의 物質力이 斜陽化된 오늘에도 정복, 지배, 착취를 계속한다면 큰 災殃을 겪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마음을 滿足시킬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영국인은 沈淪할 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신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sup>(62)</sup>라는 設問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回答으로서 「J. 스트레이치」는 “그것은 福祉의 理念이다. 복지의 이념도 인간의 生活水準의 上昇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理念은 自己中心的, 利己主義의 인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個人의 富裕와는 상이한 것이며 또 個人의 부유보다 우수한 것이다. 복지의 이념은 전사회의 物質的 福祉를 그관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自己富裕라는 理想과 비교하면 그것은 寬容的이며 協力的이다.……복지의 이념이 政治的, 經濟的 生活를 적절히 整備하여 貧困을 없애고 公正과 機會를 幅 넓히고 게다가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多樣性을 育成시킬 수 있다면 전세계의 模範으로 되어 세계에 類例없는 貢獻을 할 것이다”<sup>(63)</sup>라고 말한다. 그리고 「G. 뷔르달」의 의견에 따라 “선진 자본주의국민은 特權的 階級과 단절된 市民全體의 복지에 留意하게 되었고 그程度는 실제로 점점 顯著하게 되어온 國民的 團結과 國民的 連帶의 觀念이 階級鬭爭을 超克할 정도로 까지 되었다”<sup>(64)</sup>고 덧붙인다. 이와같이 「J. 스트레이치」는 戰後의 제국주의는 복지의 理念에 입각한 民主주의의 國民的 定着에 의해서 消滅할 것이라는 帝國主義存在의 否定論을 主張한다.

要約하자면 제국주의의 終焉에 대한 「J. 스트레이치」의 이론은 그의 民主主義論과 福祉國家論에 입각하고 있다. 先進國과 後進國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相互信賴 도덕적 지지 要因 등의 精神的 態度를 중시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R. 녀시」 「G. 뷔르달」, 「J.K. 갈브레이드」 등의 이론 즉 開發化, 近代化, 工業化 등의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J. 스트레이치」의 帝國主義論은 그의 民主主義論과 福祉國家論이 現代國際經濟學者들(특히 「R.

(61) *ibid.*, p. 306.

(62) *ibid.*, p. 217.

(63) *ibid.*, p. 229.

(64) *ibid.*, p. 230.



역시]와 [G. 뒤르달])의 후진국개발이론과 融合되어 成立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理論的 歸結은 당연히 民主主義的 福祉國家理論과 후진국개발이론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소멸론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러한 理論의 제기는 「레닌」帝國主義論의 現代의 無用論을 說破한 結果로 되었다.

### III. 結 語

지금까지 고찰한 것이 [J. 스트레이치]帝國主義理論의 基本部分이다. 그의 이론도 비판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J. 스트레이치]는 제국주의적 착취관계를 舊殖民地支配體制에 국한하고 있으나 法的 식민지 지배 없이도 貿易이나 기타의 영향력의 행사로 경제적 착취가 식민지 아닌 나라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理論은 성립하지 않을 것인가? 어느 면으로 보나 [J. 스트레이치]는 제국주의의 搾取關係의 존재를 너무 狹義로 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또 그는 제국주의 존재의 變更條件으로서 민주주의의 國民的 定着이라는 국내조건의 比重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나 國際關係의 影響이 오히려 國內條件보다 비중이 큰 변경 조건이 아닐까? 물론 [J. 스트레이치]도 外部條件을 무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內部條件을 지나치게 제국주의 변경의 優位條件으로 認定하고 있음은 英國人으로서 自畫自讚格이 아닐 수 없다.

전후 식민지는 정치적으로 獨立하고 舊殖民地體制는 붕괴되어 제국주의의 發現形態가 변경되었음은 자유주의이론가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發現形態의 변경과 비례해서 帝國主義本質까지 변경되었다는 [J. 스트레이치]式 見解는 너무 무리가 아닐까? 발현형태에 따르는 제국주의 本質의 변경은 어느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兩者의 比例的인 변경의 主張은 權力政治의 입장에서든 首肯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舊帝國(英帝國)에 대신할 새로운 帝國建設의 가능성이 있는 미국, 소련, 중국은 障害物의 다수가 존재함으로서 새로운 제국의 대두를 沮止할 수 있다는 것이 [J. 스트레이치]의 견해다. 그는 새로운 제국의 첫째 沮止要件으로서 美國과 소련의 反帝國主義的 傳統을 들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과 소련은 과거에 제국주의적 膨脹을 수행한 歷史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一律的으로 반제국주의적 전통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J. 스트레이치]가 提示한 그의 沮止要件도 제국주의 膨大에 대한 外的 沮止要因은 되어도 제국주의 성장을



脈相通한바 있다. 權力の 팽창정책을 「H.J. 모건소」가 말하듯 支配欲이라는 心理的 근거에서 추구함을 定說로 받아 들일 수 있고, 文明社會이래 국가권력의 팽창경향은 時의 古今과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존재하였으므로 「J. 스트레이치」가 “帝國主義란 어떤 民族 또는 어떤 國民이 他民族 또는 他國民을 정복하고 制壓하여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過程”이라고 말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이론가들의 定義보다는 월등 우월한 것은 틀림없다. 정복과 제압을 「슈페터」는 具體的 利益이 없는 無目的的 傾向이라고 말하여 집중적 비판의 화살을 받았으나 「J. 스트레이치」는 「슈페터」와는 반대로 具體的 目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動因으로서 그는 주로 經濟的 動因을 들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軍事的 動因 및 戰略的인 競爭精神등을 더 중시하고 있음은 卓見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J. 스트레이치」의 한 講演文을 引用하면서 本稿를 끝맺기로 한다.

“民主社會主義者의 世界觀은 共產主義的 世界觀과 같이 修條整然하고, 論理的으로 首尾一貫하려고 企圖하지 않으며 우리의 火急한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다고 自處하지도 않는다. 민주사회주의자의 世界觀은 經驗的, 實用的, 實驗的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깊은 感銘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공산주의자의 敎理는 그것이 하나의 敎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훨씬 용이하다.”<sup>(66)</sup>

{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  
{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  
{ 서울大學校商科大學助教授 }

(66) John Strachey, *The Great Awakening: from Imperialism to Freedom*(Encounter Pamphlet, No. 5, 1961) 李忠孝譯『帝國主義와 民主主義』p. 95.